



길동생태 공원

자연의 소리가 좋다

느리게 걸어도 좋다

자연과 친구가 된다

숫자로 보는 길동생태공원 이야기

1999년생 길동생태공원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조성된 생태공원입니다. 생물 서식처와 종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공간이자 자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의 이해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.

400명 길동생태공원은 다양한 동 ·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물서식처로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면서, 시민에게 자연 관찰 · 체험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인터넷 홈페이지(모바일)를 통한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운영 시간대별로 1회당 30~40명, 일일 총 입장정원 400명으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
2,985종 길동생태공원에는 총 2,985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.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생물종 조사 결과, 포유류 16종, 조류 131종, 양서 · 파충류 13종, 어류 21종, 거미 155종, 곤충 1,186종, 식물혹 200종, 수서무척추동물 134종, 식물 684종, 버섯 445종 등 총 2,985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.

프로그램 안내

매년 20종 500여 회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길동생태공원을 오감으로 느끼며 자연의 매력에 빠져보세요.

주요 프로그램

프로그램 명	운영시기	대상
길동의 자연에 빠지다	연중	어린이 동반 가족
길동 곤충탐사대	봄~가을	초등학생
작은 실천, 에코라이프	연중	어린이 동반 가족
길동생태아카데미	봄~가을	성인

※ 프로그램 운영시기 등은 변동될 수 있음

프로그램 참여

-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(yeyak.seoul.go.kr) | 매월 25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신청 가능
- 초, 중, 고교, 장애인 학교, 성인 단체 해설 등은 유선 신청 (☎02-472-2770)

사계절 색다른 식물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느껴요

식물



▶ 갯버들
습지에서 볼 수 있는 키작은나무로 털이 많은 꽃봉오리인 '버들강아지'를 이른 봄에 볼 수 있음



▶ 복수초 ▶
3월에 가장 먼저 꽃이 피어 봄이 온 것을 알려주는 '봄의 전령사'. 여러해살이풀로 생태숲 초입에 서식



▶ 매화
이른 봄 잎이 나기전 향긋한 꽃인 '매화'가 피고 이른 여름 달리는 열매 '매실'은 식용 · 약용함



▶ 금낭화 ◀
4월경 연한 홍색의 주머니모양 꽃이 피는 여러해살이풀로 생태숲에서 군락을 이룸



▶ 뽕나무
습윤한 곳을 좋아하여 공원의 습지 주변에서 자라며, 누에나방 애벌레의 먹이식물, 열매는 '오디'라 부름



▶ 구릿대 ▶
햇빛이 잘 들며 물기가 많은 공원 도처에 서식, 2m이상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산호랑나비의 먹이식물



▶ 노랑어리연꽃
작은 노란색 꽃이 6~9월까지 피는 여러해살이풀로 습지에서 볼 수 있음



▶ 산국 ◀
공원 입구 근처에 서식, 가을 국화 중 가장 늦은 10월 중순에 노란색 꽃을 피우는 여러해살이풀



▶ 갈참나무
참나무 중 비옥하고 습윤한 곳에서 자람. 생태숲 우점종으로 둥근 각정아를 쓴 타원형의 도토리가 달림

친근한 곤충과 보기 힘들었던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곤충이 살고 있어요 곤충



▶ 큰줄흰나비
날개에 검은 줄무늬가 있으며 애벌레시기에 미나리생이를 주로 먹는 초치성 곤충



▶ 산호랑나비 ▶
봄에는 방풍잎을, 가을에는 구릿대잎을 먹으며 애벌레는 뱀사뿔로 방어 행동을 함



▶ 사슴뿔뱀
애벌레는 생태숲 부식토에서 자라며, 체액과 흙으로 번데기방을 만들. 5~6월경에 생태숲에서 관찰할 수 있음



▶ 애반딧불이 ◀
애벌레는 깨끗한 논과 습지에서 서식하며, 6월 중순경 성충이 되어 불빛을 냄



▶ 쌍고리부전나비
(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)
6~7월경 생태숲에서 매년 출현. 고목에 사는 개미가 애벌레를 대신 키움



▶ 대왕나비 ◀
7월경에 관찰 가능하며, 애벌레 때 참나무 잎을 먹고 성장함



▶ 연분홍실잠자리 (환경부 기후변화 지표종)
남방계로 수생생물이 풍부한 습지를 선호하며, 2012년 이후 습지에서 꾸준히 관찰되고 있음



▶ 두점박이잠자리 ◀
가을 대표 잠자리. 얼굴에 검은 점이 두 개 있고 가을이 되면 수컷은 혼인색으로 배가 붉게 변함



▶ 섬서구메뚜기
농촌체험학습장에서 7~10월경 관찰됨. 수컷이 작아 짹짹하는 모습이 아기 없는 것처럼 보이며 갈색형과 녹색형이 있음

한반도 고유종 고라니 등 반가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

동물



▶ 북방산개구리 (서울시 보호종)
물속 돌 밑에서 겨울잠을 자다가 3~4월경 짹짹기 후 알을 낳고, 반딧불이 자연서식지, 습지, 논 등에 서식



▶ 피꼬리 (서울시 보호종) ◀
나무 가지에 집을 짓고 입하 즈음 도래하여 생태숲 참나무에서 번식하는 여름철새



▶ 다람쥐 (서울시 보호종, 한반도 고유종)
한반도 고유종으로 줄무늬가 특징. 도토리나 밤이 주식이며, 생태숲 땅 속에서 주로 생활함



▶ 박새 (서울시 보호종) ◀
공원의 우점종으로 나무구멍이나 인공새집에서 번식. 동절기에는 무리지어 생활하는 텃새로 연중 관찰 가능



▶ 한뼉검둥오리
철새였다가 전국적으로 텃새화된 오리로 논병아리못 물가주변에서 번식. 암수 모두 부리 끝이 노란색임



▶ 되새 ◀
농촌체험학습장 느릅나무 군락지에서 주로 관찰되며, 나무열매를 좋아하고 무리지어 생활하는 겨울철새



▶ 고라니 (한반도 고유종)
생태숲에서 매년 번식. 물기를 좋아하여 'water deer'라 부르는 한반도 고유종



▶ 노랑망태말뚝버섯 ◀
한여름 장마 후 숲에서 관찰됨. '드레스버섯', 망토를 펼치는 시간이 짧아 '하루살이버섯'이라고도 부름



▶ 영지
참나무과의 고사목이나 뿌리,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1년생 약용버섯으로 7~9월경 관찰 가능

오시는 길



시내버스

길동생태공원 하차 | 342, 2312, 3412
LG강동자이아파트 하차 후 상일C 방향으로 도보 10분 이내 | 341, 370, 9301, 30-1, 30-3, 112, 112-1, 112-5)

지하철

5호선 강동역 4번출구에서 시내버스 환승 (342, 370 외)
5호선 둔촌역 2번출구에서 시내버스 환승 (3412)
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3번출구에서 시내버스 환승 (2312, 342)

승용차

내비게이션 검색 <길동생태문화센터>, <강동구 천호대로 1298>
상일C방향 진입 시 P턴 후 좌회전

공원이용안내

입장시간 | 길동생태공원 10:00~16:00 / 길동생태문화센터 10:00~17:00
인터넷 사전예약 | yeyak.seoul.go.kr
입장료 | 무료
주소 |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291 / http://parks.seoul.go.kr
문의 | 02-472-2770

보다 자세한 내용은
QR코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!

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

